

環境意識 있는 분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 편집부

●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문의원계선 그동 안 서울시 공해 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서공 위)의 위원장으로 지역민간 반공해운동을 전개해 오신걸로 압니다. 우선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말씀하신 서공위는 구로1동 주부들을 중심으로 공해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모임입니다. 공해에 대한 경각심과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펴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지요.

즉 합성세제 덜쓰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정 에서 부터 할 수 있는 것말이죠. 그런데 가정주부 가 오염원의 주범인것 처럼 지적하면서도 정부에 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만 했지 합성세제의 광고제재나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 얼마나 자원이 재활용되었는가의 홍보에 대해선 무관심합니다.

다시 말해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쓰레기를 잘 분리해 버리면, 이런 저런 과정을 걸쳐 자원이 활용돼 연간 얼마의 이익을 가져옴은 물론 그만큼 환경도 깨끗해진다는 식의 자료를 제공한다면 주 부들의 참여의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게 되지요. 하지만 애써 분리 해놓은 쓰레기조차 제대로 분리수거해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면을 극복하려면 제도권내에 들어가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 민간시민운동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제도권안 에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말씀이군요.

사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회에 참여하는것이 환경 보전의 지름길이라고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미지가 좋다고들 말씀 하고 있으니까요.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이 현실이 니까 제도권안에서의 시민운동을 꺼려하는거지 요. 유럽의 녹색당처럼 어느정도의 위치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종교인으로서 숨쉬는 맑은 공기, 마시는 깨끗한 물, 공해없는 민주의 땅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 으로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를 저 야한다면 바로 짊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땀보다 깨끗한 물을 원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니 만큼 향후 10년간 회복되지 않으면 2천년대의 환경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공해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의 환경오 염이 심각합니다. 특히 구로동지역은 대기오염우 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구로동의 오 염실태에 대해선 어떤 조사활동을 하셨는지요?

-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의식 교육 및 캠페인 을 벌였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취 약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로 우리들이 할 수 있 는 부분을 찾아서 했죠. 이곳 구로동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고자 아황산가스 검사기구도 많 이 알아보러 다녔는데 비용이 엄청나 포기했었고 폐수문제 역시 전문적지식도 약할뿐 아니라 측정 기구도 구하지 못해 구체적인 조사활동은 펴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엔 일본에서 기구를 입수해 구로 동 신도림 등의 대기중에 함유된 질소산화물을 측



정해 봤는데요. 구로동은 기준치를 무려 7~8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황은 저희 서공위에서 발행하
는 공해소식지에만 발표되었을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를 검·인정해 줄 수 있는
전문인들의 뒷받침도 없었고요. 또 이 지역은 항
공기나 전철의 소음도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
측정기를 입수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도 있
습니다.

● 가정주부로서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을 것 같으
데요, 그동안 공해추방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리
고 이번 기초의원선거를 치루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예, 사실 주부들이 사회활동을 하려면 남편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역시 주부들의 고정된 인식
과 가정에서의 역할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용
기가 필요했습니다. 주부들의 한계는 여성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가정주부라는 취약점에도 불구
하고, 또한 가정주부로서 지난 4~5년간 순수하게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것이 오늘의 당선을 가져오
지 않았나 합니다.

애써 분리해놓은 쓰레기조차
제대로 분리수거해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면을 극복하려면
제도권내에 들어가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끝으로 앞으로의 활동방향 및 계획은 어떻습니
까?

—저는 선거때 ▲환경오염은 미래를 잃는 것 ▲교
통문제는 최우선해결사업 ▲교육·문화예산증액
▲복지행정은 지방자치의 열매 등 4가지의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열심히 땀 것입니다. 현재 한
가지 아쉬운것은 의회내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저와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두
분이라도 뜻을 같이할 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